

# 中 정부 업무보고에 제시된 자본시장 최신 정책... 어떤 메시지 담고 있나?

자오시쥘(赵锡军)

중국인민대 중국자본시장연구원 공동원장, 중국인민대 중앙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되었으며,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고, 올해 경제 업무에 대한 최신 계획을 제시했다.

기자들은 보고의 2025년 정부 업무 과제 중 '재정·금융 체제 개혁 심화' 부분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68자의 내용에 주목했다. 보고에서는 '자본시장 투자 및 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적극 추진하며, 전략적 역량 확보와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한다. 주식

발행·상장 및 인수합병 제도를 개혁하고 최적화한다. 다층적 채권시장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안정화'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자본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기자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분석했다.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적극 추진,**

**시장 자금의 안정성 제고**

중앙재경대학 류춘생(刘春生) 부교수는 중앙방송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주식 시장 안정화'를 전체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안정화'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과제로 명시한 것은 경제성장 안정화와 리스크 방지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촐 차 이 증 권 (川财证券) 천 리 (陈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발전 관련 내용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본시장의 내재적 안정성 강화'에서 올해 '자본시장 투자 및 융자 종합 개혁 심화,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적극 추진, 전략적 역량 확보 및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구축 강화', '주식 발행·상장 및 인수합병 제도 개혁 최적화', '다층적 채권 시장 발전 가속화'로 변화했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최상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며,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촉진, 통화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개선, 우수 과학기술 혁신기업 상장 지원, 인수합병 활성화가 2025년 자본시장 구축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춘성은 투자 및 융자 개혁 심화와 장기 자금 유도가 이번 보고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제안의 핵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적극 추진"을 강조한 것은 현재 시장의 단기 투기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추가 자금이 부족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발행·상장 및 인수합병 제도 최적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에서

##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핵심 이슈와 시사점

'자원배분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및 융자 종합 개혁 추진에 관해, 중국인민대학교 중국자본시장연구원 공동원장 자오시쥔(赵锡军)은 중앙방송망 기자에게 "이전에는 시장 기능이 자금조달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후 '자금조달' 중심의 기능을 확장하고 균형을 맞추어 이제는 '투자 및 융자 종합' 개혁으로 변화했다. 이는 이미 시작된 작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련의 작업이 있다"고 말했다.

자오시쥔은 투자 및 융자 종합 개혁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적극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및 융자(종합 개혁)는 단지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투자자 구조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시장 자금의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과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구축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에 좋은

상장기업이 있고, 동시에 우수한 투자자도 있어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천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제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보험자금, 연금, 기업연금 등 장기 자금의 투자 의지를 강화하고, 중장기 자금의 실제 시장 유입 비율이 투자 상한선에 근접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자금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더욱 다양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발전,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상품의 수익 잠재력과 산업 발전 전망으로 중장기 자금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 전략적 역량 확보 강화: 시장 안정화에 기여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보고에서 특별히 '전략적 역량 확보 강화'를 언급하였고, 이를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구축' 앞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라고 자오시쥘 원장은 분석했다.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의 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 외부의 힘, 특히 정부의 힘과 전략적 역량 확보에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부가 관리하는 다양한 자금이 있으며, 이러한 자금들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적 역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자금 외에도 "전략적 역량 확보에는 최근 몇 년간의 통화정책 도구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자본시장을 특별히 겨냥한 두 가지 주요 도구(즉, 증권·펀드·보험회사 스왑 편입과 주식 환매 및 증액 재대출)도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도구는 사실상 전략적 역량 확보의 구성 요소다. 시장 개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확보된 전략적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오시쥘 원장은 "전략적 역량 확보 강화"의 제안이 시장에 안심제를 제공하여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장기적 자본 강화: 신질(新質) 생산력 발전 지원

이번 보고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부분에서는 '창업투자펀드 차별화 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성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벤처투자 발전을 가속화하고 장기적 자본을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발전 가속화와 장기적 자본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류춘성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과학기술 혁신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드테크 연구개발은 주기가 길고 위험이 높아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자본의 '긴 주기+높은 오류 허용' 특성은 과학기술의 기초연구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전체 혁신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자원 배분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벤처투자는 '조기·소규모·하드테크 투자'를 통해 자금이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흐르도록 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셋째, '과학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이 된다.

장기적 자본은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의 협력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이 "실물에서 벗어나 허상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질 생산력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자오시쥔 원장 역시 이 부분의 요구사항이 고품질 발전,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신질 생산력 발전과 연구개발 메커니즘, 특히 자원 배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벤처투자펀드는 연구개발에서 자금 배분 메커니즘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자오시쥔 원장은 언급했다.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많은 우수한 과학기술 기업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벤처투자의 지원 아래 신질 생산력 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추진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 경제 구조 고도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벤처투자 발전 가속화와 인내 자본 확대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자본시장의 전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자본시장이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혁신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더 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벤처투자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내 자본을 확대할 것인가? 류춘성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국유자산 평가 및 오류 허용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선전(深圳)의 '대담한 자본(大胆资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단기 수익

평가를 약화시키며, 국유자금이 전략적 영역에서 시행착오를 허용하고, 책임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자금 조달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 보험자금, 외국자본 등 장기 자본을 유치하고, 연금의 벤처투자펀드 투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국경 간 이중통화 펀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투자 회수 생태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혁을 가속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REITs)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인수합병 지급 도구를 개선하여 IPO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자오시쥔(赵锡军),  
중국인민대 중국자본시장연구원 공동원장  
중국인민대 중앙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링크: [http://rdcy.ruc.edu.cn/zw/jszy/zxj/\\_zxj\\_grzz/c3e262b34ecb4bca82b0e11b0560f200.htm](http://rdcy.ruc.edu.cn/zw/jszy/zxj/_zxj_grzz/c3e262b34ecb4bca82b0e11b0560f200.htm)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